

“용인특례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는다”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 25일 대장정
대동항쟁 고려상수 성화봉송 일정 첫발
봉송구간 38개 읍면동서 공연 퍼포먼스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 용인 비전에 초점



을 달래기 위한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성화가 지나는 동네마다 시민들이 풀을 놓아 카드션, 화제 전시 등을 통해 용인에서 처음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의 성화를 환영하고 응원한다.

◆개회식 무대·반도체 회로기판 형상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표현

용인에서 열리는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주제는 ‘The amazing future(놀라운 미래)’다. 25일 용인미스트다이움에서 열리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의 테마는 ‘Shining tomorrow(빛나는 내일)’이다.

주제가 밝아듯, 개막식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회식 무대는 반도체 콘셉트로 제작한다. 전면에 설치된 LED 스크린과 암과 양 와이드 LED 스크린에 반도체 회로기판의 모습을 비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이 세계로 뻗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무대 곳곳에 숨겨진 특장 카메라와 웅장한 영상, 조명이 어우러진 멀티미디어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22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오는 25일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 개최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용인시에서는 첫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라는 기대감이 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여파로 직전 2개 대회(고양, 파주)가 연속 취소된 터라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대회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기야 당초 계획된 4월 개최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달 개최된다.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되는 2022 경기도체육대회는 성화봉송부터 용인시다. 용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았다는 얘기다.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을 살펴본다.

◆말 타고, 배 타고, 하늘 날고

대회 주경기장인 미스트다이움은 밝힐 성화는 대회 전날인 24일 고려시대 대동항쟁 승전지 천안에서 체계된다. 330여 명의 봉송 주자가 이를 갈 용인시내 38개 읍·면·동을 순회한다.

첫 주자는 고려시대 무장이다. 대동항쟁의 승전 장수가 말을 타고 성화봉송 일정의 첫발을 내딛는다. 봉송 구간은 천안~사장터다. 사장터는 청인성 북쪽 들판으로 지금의 청인고등학교 인근이다. 일설에는 광고군의 적장 살리타이가 김윤후 장군과 천인공무원에게 사살된 곳이라 하여 사장터란 지명을 얻었다 한다.

사장터에 이어 날사읍~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모현읍~포곡읍~유람동~중부~역북~삼가~상하~동백3~동백4~동백2동~구간을 이동한 성화는 용인시청에 안착돼 다음날 일정을 기다린다.

개회식 당일인 25일, 성화는 동력 배터리라이더를 타고 기흥 호수공원으로 이동한다. 안전함에

페레이드를 펼치며 시청으로 향한다. 취타대와 풍물단을 대동한 차인성 전투 승전 병장들이 흥겨운 분위기로 자아내고 퍼레이드 축간중간 무예팀의 사법공연도 진행된다.

800여 년 전 고려시대 몽골의 2차 침입에 항전, 승리로 이은 차인대왕의 의미를 부각시켜 용인시가 대몽항쟁의 승전지이자 중심지임을 알린다.

페레이드의 도착을 기다리는 용인시청에서는 용인시 항도부문화재 할미성능아보준회의 할미성 놀이가 시연된다. 잠구십이의 신령이나 가락과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살장구, 어질적 넘어질 듯 삼모를 돌리며 공중에서 뛰어드는 채상소고, 막대기 하나만으로도 물건을 빙빙 돌려대는 바나나이, 그리고 열두 발이나 되는 종이 띠를 자유자재로 돌려대는 열두발삼모가 흥을 북돋운다.

다음날 한국민속촌 출입문 앞에서는 ‘사포도’가 ‘포풀’들과 함께 성화를 나른다. 종화자(성화봉송차량)에서 성화를 물어줄려는 사포들은 포풀들을 함께 30미터 거리를 행진, 봉송주자에게 성화봉을 넘긴다.

보정동에서는 성화 봉송 축하 난타공연이 진행된다. 성화 도착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무료함

◆미래 도약의 불꽃, 로켓 타고 점화

경기도체육대회 68주년을 상징하는 숫자가 대북 공연과 함께 카운트 다운되면서 본격적인 개회식이 시작된다.

이어 선수단 입장, 가수 애일리와 함께 하는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 개회선언과 대회기 게양, 이날자전드와 엠비掬이스의 피포먼스에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환영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회사 등이 진행된다.

선수대표와 심판대표 선서 이후 용인미스트다이움 양쪽 문에서 두 명의 성화봉송 주자가 입장해 두 성화를 합침,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성화 점화를 위해 주무대로 향한다.

최종 주자가 화반에 점화하면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미래 도약의 불꽃이 화반에 있던 채 공중으로 떠오른다. 성화는 다시 로켓에 실려 성화대로 안착,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개막을 알리며 이틀간 메인 스타디움을 밝힌다.

용인두일기자

‘일본 취업의 꿈’ 수원시, 제7기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개강식

‘해외취업희망드림 아카데미’ 개강식

“일본 취업의 꿈” 수원시, 제7기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개강식

수원시가 일본 취업의 꿈’을 가진 수원지역 청년들에게 어학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제7기의 새 운동을 알렸다.

수원시는 3월 오전 팔달구 수원시사아학원에서 ‘2022년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제7기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제7기 교육생(20명), 수원시 공직자, 교육·취업 관련 기관·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업 내용 소개, 교육 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청년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일본어)·교육·취업 특강을 지원하고, 이어서 작성 첨삭·모집 등 취업 첨삭 훈련 캠프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일자리도 연계해준다.

제7기 교육은 8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수원시사아학원에서 운영된다. 전문 강사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한다. ▲해외 취업을 위한 일본어 교육(문법 등) ▲일본어 종급 회화 ▲비즈니스 회화 및 면접 회화(자문) ▲일본 취업 기초 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기초·실전편 ▲면접 대비 기초·실전편(모집 포함) 등을 교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청년들이 ‘일본 취업의 꿈’을 펼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일본 현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겠다”며 “급변하는 해외 취업 시장에 대응해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두일기자



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들이 조정연습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대회 성화대회 점화 연출 시연.

용인=김두일기자



Dongwha 동화자연마루

프리미엄 원목마루 바움
Baum 165·125
PREMIUM NEW PARQUET COLLECTION



제품 문의

1899 - 2837

Smart Economy

한스
경제

광고문의 및 접수

TEL : 02)732-2722

FAX : 02)735-2203

광고문의(상장구): 이재승

광고문의(상장구): 이재승

광고문의(상장구): 김종기, 김혜기

광고문의(상장구): 김종